

한국여성사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운동

1. 한국의 여성운동과 '위안부' 문제의 등장

1) 일제시대 여성운동

★ 1920-1930년대: 근대화 교육, 이념지형의 혼재(사회주의와 기독교의 대립구도)

-신여성(어느정도 자아실현이 된 여성을 그당시는 '신여성이라 불렀다.), 기독교 여성, 사회주의 여성(3·1절이후 등장)의 세부류의 여성이 나름의 이념적 토대와 지향성을 가지고 근우회로 결집되었다가 1926년경 해체 되었다.

그리고 그당시 신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식여성도 3·1절이후 등장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 근우회 해체의 본격적 이유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여성사이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것에 기인하고 있으나 봉건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1920년 당시에 세워진 근우회가 강령에 출산휴가나 모성보호를 지향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선진적인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낳은 여성 결집의 조직이었다.

★ 194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성 모성(천황가 대일본제국의 위해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극심하게 강조되어 여성지도자들의 변절이 나타나 어용조직만 생존하게 되었다.

2) 해방후 여성운동: 주체활동보다 지원활동을 많이 전개한 시기 ★ 1950-1960년대: 식민시기의 친일자들이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돌아서게 되고 좌우 대립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 1970년대: 적극적인 후원활동이 왕성하게 전개 되었다.

우선 관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호사업이나 여성지위 개선, 봉사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왕성한 활동, 교회여성연합회와 기장여성신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여성운동단체들이 인권회복등의 내용으로 활동, 그리고 반독재 투쟁과 여성노동자운동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시기의 활동은 원폭피해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의 한축과 박정희 독재에 맞선 인권회복운동인 민주화지원활동의 한축등으로 크게 두축으로 나눌수 있다.

1975년에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 1980년대: 대학내에 여성화 강좌가 확산되었다.

여성평우회나 여성단체연합이 출범하는등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사무직등 분화된 부문별 여성운동조직이 확대되었다. 하여 '최루탄 저지운동'등 이슈중심의 조직간의 연대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여성의 성이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80년대 민주화세력중 특히 여대생들을 상대로한 성고문이 1984년에 처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여대생 추방대책위가 꾸려졌고, 얼마있지않아 1986년 부천시 권인숙씨 성고문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여성의 성이 사회화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뒤이어 김부남사건, 보은이 진관이 사건등이 발생하였고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기생관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연이어 성폭력, 인신매매, 메메춘동이 급속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운동이 80년대 후반 성의 문제가 핵심적 내용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

이문제는 문서상으로는 1932년에 확인이 되고 있으나 1937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대두되어 1943년-1944년경에 칙령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대 문제가 여성운동에 받아들여진 계기는 현재 정대협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윤정옥 선생님의 개인적 관심과 교회여성연합회의 조직적 결합으로 고민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1988년 교연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때 일본답사 여행과 정신대문제연구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여 제2의 기생관광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게 되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게된 계기는 1990년 한겨레신문에 정신대답사기가 연재되면서였다. 이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성 여부에 초점에 맞춰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죄요구를 하였으나 일본정부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장기적이고 치밀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되어 기독교여성단체와 일반여성단체, 그리고 당시 전여대협(건준위)를 중심으로 정대협을 발족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2. 여성운동에 있어 위안부 문제의 위치

1) 초기의 공감대

-전후문제로의 공감대형성: 은폐된 식민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인력수탈과 억압의 차원과는 다른 여성의 성을 매개로 국가가 통제된 독특성이 있어 특수한 문제로 인식하기에 시작하였다.

-인권문제로 인식: 이후 여성의 성적 침해는 인권침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가에 의한 성고문사건과 연관된 여성의 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평이 확장되었으며, 수치스러운 과거사에서 역사의 피해자로 재규정되면서 할머니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호나 캠페인성 진행이 아니라 정치활동제안: 여성문제 해결에 있어 정치적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는 정부에 미온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며, 사안중심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2)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형성배경

-일본측 형성배경은 가부장제와 일본식 천황제 이데올로기, 군국주의등 세가지로 들수 있다. 이는 순결을 그어떠한 것보다 고귀하게 생각하는 조선여성에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하는 군인으로 성을 담보로 하는 위안부로 아무런 죄책감없이 오히려 아주 영광스러운 일로 바쳐지게 하였으며, 군국주의는 여성들에게 모성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한국측 당시의 형성배경은 민족이 식민지 상황, 계급의 문제, 성의 문제등을 들수 있는데 이는 식민지 상황은 어떠한 것도 결정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며, 계층·계급의 문제는 부르조아 계급보다 하층서민들이 끌려가기 용이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성에 대한 순결이데올로기는 전후에도 고향으로 피해여성들이 제대로 돌아올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3)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방식

-민족의 문제: 당시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상황에서부터 인식하는 문제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민족적 차별을 전제로하는 민족적 관점의 문제해결방식은 남성과의 연대세력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국가의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여성은 천황의 신민인 남성을 떠받치는 도구의 역할로 두가지 종류의 여성상을 존재시켰다. 이는 신민을 낳고 교육하는 여성, 신민인 황군을 위로하는 여성으로 인식케하면서 당시 전세계적으로 상상치도 못할 군이 조직적 개입을 통해 형성된 위안부 문제가 형성되었던 일본측의 배경의 기본이해사안에서 문제를 바라볼수 있다.

-계급의 문제: 봉건 방식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되었다. 당시의 계층·계급별 인권실태등으로 분석해볼수 있다.

-성의 문제: 가부장적 사고와 구조에 의한 산물로 여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일본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춘은 필요아이디어: 인식의 보편성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

었던 한국측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한 사안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은 주적의 명확한 규정으로 운동의 효율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재 정대협운동과 위안부 문제

-민족적 관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전체의 문제로 강조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한일간의 국가적 민족적 사안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는 정대협의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연대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크게 작용하였다.

-여성적 관점: 국가권력을 통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로 강조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이후 정대협의 운동이 진행하는데 있어 좀더 연구되고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 민족적 관점과 여성의 관점은 대립적인가? 병렬적인가?의 재고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강대국 패권주의, 군사주의의 피해등의 중첩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는 명제이다.

3. 향후과제

1) 균형적 관점: 민족과 여성의 관점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민족적 관점으로 이문제를 활발히 진행하여오면서 많은 연대의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앞서도 서술하였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식민지국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의 민족적 차별로만 전제해서 풀어나기에는 부족한 특수한 문제이다. 하여 이후에는 발전되어온 민족적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의 수준까지 여성주의적 문제접근 방식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2) 균형적 방식: 일본정부에 대한 투쟁과 피해자 치유의 조화가 필요하다.

10년이 넘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대일본, 대정부투쟁 잘 외화된 투쟁을 조직화하였지만 당시 피해 할머니들은 이문제를 위한 증언당시에도 할머니였고 오히려 지금은 앞날을 알 수 없이 병들고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대정부투쟁의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하지 못하였다. 살아생전에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상으로 살아계실제 그분들에게 수치스러운 역사의 피해자로서의 치유에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3) 균형적 운동: 국제운동과 국내운동의 조화가 필요하다. 위안부의 대부분이 조선여성이라는 하나 이는 한반도내의 문제만으로 풀어나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비도덕성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내는 것이며 아직도 끊이지 않는 분쟁에서 발생할수 있는 성을 매개로한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더욱 조화롭게 진행될 요구가 있다.

4. 정리하며 당부하는 말

당면시기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투쟁을 전국의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진행하는 동지들에게 중요하게 제기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끝날때까지 해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과거사라고 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 부력분쟁, 내전, 유혈사태, 국내의 4·3이나 5·18등의 민중항쟁에서 결부되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뜻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하기에 단순히 과거사의 문제로 전후보상이 문서상의 인정으로 끝났고 시 기상으로 너무 지났다는 이유로 멈출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투쟁의 길을 50만의 선봉으로 100만의 단결로 갈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위별로 수요집회진행할것을 고민하는데 있어 객관적 상황을 보는데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증이 들어가면서 제안한 수요집회가 아직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단위가 나타나고 있고 일관한 위안부 문제로 하우들을 정치의식화하는데 있어 오래된 과거사의 문제이고, 총여학생회=정신대투쟁이라는 일꾼들의 인식이 99년을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주춤거리게 하고 객관적으로 함께할수 있는 일꾼들의 수적인 상황은 집회라는 것이 무남으로 다기와 주춤거리게하고 있습니다. 9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면

서 전여대협 50만 여학우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부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의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아직도 이러한 사안으로 내전이나 유혈폭동등의 분쟁에서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전세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민족대단결 의식고취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과 북, 해외의 공동의 투쟁으로 상징하는 것 만큼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사안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21세기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해결 되지 않은 것이다. 하여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화하여야 할 우리의 몫이 남아 있는 것이다.

-96년이후 학번은 민감하게 이투쟁을 바라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기에 97학번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기에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하기에 새롭게 학내의 분위기를 잡아 투쟁할수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있어 여학우를 주체로 세워내는 것으로 우리 여대생들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당당히 세워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로 늦었지만 다시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학우들의 의식을 장악해 들어잡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일꾼들의 넘치는 심장에 버금가는 냉철한 지식이 필요할 테죠?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짚막한 내용을 시기별 중요학습꺼리로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보내는 얼마안되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은 확보하시구요, 자세한 것은 서점이나 정대협 저희 간부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90년대 연방조국 건설의 그길에 남과북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과 북, 해외의 공동투쟁으로 일구어 냈시다. 폭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상승적인 수요집회 일상화의 공간에 50만 여학우의 삶과 투쟁을 책임지는 전여대협 일꾼들의 고민들로 가득하기를 .. 가열차고 힘있게 투쟁합시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정대협 주최의 대학생 활동가 교육현장에서 정대협의 양미강 총무님이 강연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5기 전여대협